

# Global Packaging News

## CHINA

### 亞 최대 규모 인쇄전시회 'All in print China 2023' 코로나19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 으로 열려

'제9회 올 인 프린트 차이나(All in print China) 2023' 이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컨벤션센터(SNIEC ·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에서 열린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해당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의 인쇄 종합 박람회로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100여개 회사, 11만 여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모든 인쇄 기술 및 장비 분야를 총망라한 '올 인 프린트 차이나 2023'에서는 디지털 인쇄, 프리프레스

및 디지털화, 종합 인쇄, 후가공 처리, 종이포장 가공, 골판지 포장, 라벨 인쇄산업, 혁신적인 인쇄 재료 등 총 8가지 테마로 나뉘어 전시된다.

중국 인쇄기술협회, 중국 인쇄기술아카데미 및 Messe Dusseldorf(Shanghai) Co., Ltd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 인 프린트 차이나'는 2003년 이후 8번의 성공적인 세션을 거쳤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인쇄 산업의 최첨단 기술에 집중해 왔으며, 글로벌 인쇄 기업을 위한 전시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업체와



▲ All in print China 2020 전시회 당시 모습

구매자 간 거래를 촉진시켰다. 이외에도 인쇄 전문가에게 국제 교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의 교류 및 보급에도 앞장서왔다.

All in Print China는 인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혁신과 추진력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쇄 및 포장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재료의 교환 등을 소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합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쇄 산업은 '녹색' '디지털화' '지능 및 통합'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번 전시를 주목해볼 만하다.

## CANADA

###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협의 돌입

식품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려는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캐나다가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오타와 시(市)는 최근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오염 방지 또는 'P2 공지'를 작성하는 계획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한 달 동안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캐나다 정부는 라벨이 소비자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과 퇴비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제안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최소 의무 임계값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기준치는 식품 안전 요구사항으로 인해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으로 설명되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타와 시는 구운 제품과 제품을 위한 조개껍질, 야채와 고기를 위한 랩, 플라스틱 조미료 병과 애완동물 식품의 가방을 포함하는 '1

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P2 공지'를 제안했다.

P2 공지는 캐나다의 대형 식료품 소매상들이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그 요건을 설정했다. P2 공지는 캐나다 정부가 재활용된 내용물과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의 축소, 재사용 및 재설계를 위해 설정한 목표 등을 충족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재사용-리필 시스템, 농축 제품 및 플라스틱 포장에 없는 제품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목표도 포함된다.

해당 목표는 2028년까지 모든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이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하며, 퇴비화 가능하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캐나다는 궁극적으로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플라스틱이 없는 포장재로 판매되길 원한다.

산업무역기구인 캐나다 '푸드 앤드 베버리지'의 CEO 크리스티나 파렐은 회원들이 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음료 제조업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 포장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P2 고시에 따른 책임은 대형 식료품 소매점에 있지만,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Taiwan

### 식품 포장에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 공고

알레르기 성분 11종 함유한 포장식품 대상

2023년 6월 22일,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지침 공고를 발표하며 포장 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대상(11종)이 함유된 제품은 제품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명칭 및 관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고에 따라 대만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알레르기 필수 표기사항 뿐 아니라 권장 표기사항을 함께 주의해 대만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배경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2015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표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큰 식품 원료인 갑각류, 땅고, 땅콩, 우유, 달걀을 함유한 제품은 의무적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기존 5종에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이산화황 잔류물 10mg/kg 이상)의 6종을 추가해 알레르기 정보 표기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2023년 6월 22일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포장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대만은 땅콩 등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대상 11종이 함유된 제품의 용기나 외부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명칭 및 관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필수 표기 정보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필수 대상(11종): 갑각류, 땅고, 땅콩, 우유 및 산양유, 달걀,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 또는 이산화황을 사용한 최종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인 제품.

다음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① ‘본 제품은 OO이 포함되어 있음’ ‘본 제품은 OO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함’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 표시.

② 제품명에 ‘OO’이라고 명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성 성분을 모두 기재.

### 권장 표기 정보

·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권장 대상(4종): 오징어 및 기타 두족류, 달팽이 및 기타 조개류, 해바라기 씨 및 기타 씨앗류, 키위

· 식품 생산 공정에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의 생산 공정 중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 OO처리가 있음’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장.

###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 19조)

· 문자의 길이와 너비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포장 및 용기의 최대 면적이 80cm<sup>2</sup> 미만인 경우에는 제품명, 회사명, 유통기한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의 문자 길이와 너비를 2mm 이하로 할 수 있음)

· 라벨은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라벨은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 위반 시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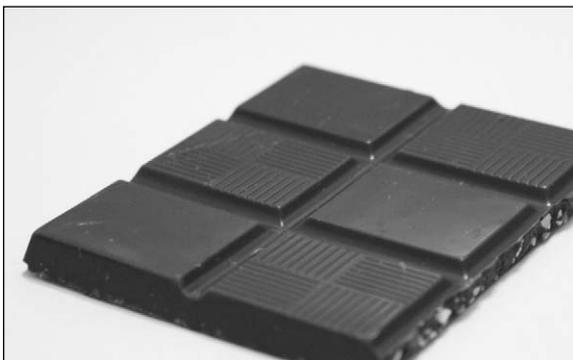
알레르기 정보가 규정에 따라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 정보가 부실한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에 기한 내 제품 회수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08만~1억 84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4만~1억 4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Thailand

### 초콜릿 제품의 품질, 라벨링 등에 대한 개정 고시

2023년 6월 30일 발효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표준, 라벨링, 포장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다. 한국산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며, 태국으로 연간 약 123만 달러



▲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표준, 라벨링, 포장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다.

규모로 수출되고 있다.

보건부 고시 No. 441의 조항8에 따르면 판매용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보관 시 보건부의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고시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상세 규정은 태국 보건부 홈페이지 내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배경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현재 생산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No.441)를 개정하였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초콜릿에 관한 규정 B.E. 2522(1984)와 B.E. 2554(2011)가 폐지되고, 주요 조항이 업데이트되었다.

### 대상 품목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스패니시 핫 초콜릿(Chocolate a la taza), 밀크 초콜릿(Milk Chocolate), 화이트 초콜릿(White Chocolate) 등 18종)으로 전체 품목은 보건부 고시 No.441의 조항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진 일정

- 발효일: 2023년 6월 30일
- 기존 제품 유효기간: 본 통지가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허가증이 있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본 통지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부터는 기존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